

---

# 국어 순화 결과 분석 및 방법론 제언

이동석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서론

국어 순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 구체적인 순화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어, 어떤 이는 국어 순화 무용론(無用論)을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국어 순화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어 순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평소에 말과 글을 바르게 쓰는 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발음이나 단어 사용에서 다른 사람과 차이를 보일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들어 우리는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면서 한글 운동과 일본어 순화 운동 등을 통해 국어 순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20세기 초기부터 진행된 사전 편찬 작업 역시 국어 순화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국어 순화와 관련하여 여러 단체 및 개인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그 결과 국어 순화라는

큰 틀 안에서도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공존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어 순화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과 학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 대중들이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일방적으로 순화를 강요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진행되어 온 국어 순화의 결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어 순화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한편으로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제 국어 순화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국어 순화의 효용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순화가 나아갈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2. 국어 순화 결과 분석

국어 순화의 대상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동안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어휘, 발음, 구문’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휘’였다.<sup>1)</sup> 이에 따라 이 글에서도 ‘어휘, 발음, 구문’을 중심으로 순화 내용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2.1. 어휘 순화

어휘의 순화는 어종별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고유어의 순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유어의 순화는 대개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문제로 귀결된다.<sup>2)</sup> 비표준어에는 방언, 은어, 비속어,

- 
- 1) 문교부(1977: 5)의 ‘국어 순화 세칙’ 제3항에 ‘국어 순화는 발음, 어휘, 문법, 맞춤법, 언어 활동들을 포함하되, 어휘의 순화를 먼저 한다.’라는 설명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 어휘가 가장 중요한 순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물론 고유어만이 표준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의 제1장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표준어로 다루고 있는 어휘 대다수가 고유어일 정도로 표준어 사정 과정에서 논의됐던 단어들은 대부분 고유어였다.

욕설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치루다(→치르다), 으레(→으레), 난장이(→난쟁이), 열쩍다(→열없다)’와 같이 표준어와 발음 또는 표기, 형태론적 구성 요소가 유사한 다수의 어휘들이 포함된다.

표준어 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유어 순화는 현재 대중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sup>3)</sup> 다만 ‘수-’와 ‘숫-’을 구별하는 문제, ‘ㅣ’ 역행 동화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 등에서는 아직도 혼란된 모습을 보인다.<sup>4)</sup>

어휘 사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 역시 그동안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대개 발음이 비슷하면서 문법 속성이나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 (1) ㄱ. 한창-한참, 예-옛, 붙다-붙다, 걸잡다-견잡다, 벌이다-벌리다,  
 늘이다-늘리다, 맞추다-맞히다, 앉히다-안치다, 받치다-받치다,  
 들르다-들리다, 잇따르다-잇달다, 둘러싸다-둘러쌓다,  
 가르치다-가리키다, 반드시-반듯이, 지그시-지긋이  
 ㄴ. 너무-매우, 틀리다-다르다, 빠르다-이르다

(1ㄱ)의 예들은 문법적인 속성 및 어휘적인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하여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단어 쌍이다. 여러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쓰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5)</sup>

3) 물론 ‘바래다(→바라다), 빌다(→빌리다)’와 같이 아직도 순화가 안 된 경우가 있다. ‘바래다’는 ‘~하기 바래’와 같은 종결형이나 파생 명사 ‘바램’에서 그 형태를 발견할 수 있고, ‘빌다’는 ‘이 자리를 빌어’와 같은 상투적인 표현에서 쓰임을 발견할 수 있다.

4) ‘수-, 숫-’과 관련해서는 ‘수소, 수놈’을 [순쏘], [순놈]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표기에 혼란이 생기고, ‘ㅣ’ 역행 동화의 경우 ‘에기, 쟁피하다’와 같은 어형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내기, 냄비, 동맹이치다’만을 인정하는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5) 고유어의 예만 다루었지만, 한자어 중에서도 발음이 비슷한 단어의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르게 순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1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단어 쌍이다. 다만, (1ㄱ)과는 달리 발음이 서로 비슷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단어 쌍은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동된 쓰임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이를 통시적인 변화로 인정하여 새로 만들어진 의미를 수용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자어는 대개 고유어로 순화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한자어를 순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최현배(1953: 134-135)는 한자어의 순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한자어라도 익숙해져서 친근하고 평이한 느낌을 주는 것은 억지로 몰아낼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친근하고 쉬운 고유어에 의해 점차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한자어를 배척하지는 않았던 것이다.<sup>6)</sup> 최현배(1953: 134-135)에서 제시한 한자어의 순화 단계를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2) ㄱ. 일본식 한자어

예) 결국(結局) → 끝끝내, 끝장    토산(土產) → 선물  
 인육(印肉) → 인주(印朱)

ㄴ. 계급적 요소, 봉건적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

예) 주방(廚房) → 부엌    모발(毛髮) → 털  
 가증하다(可憎하다) → 알밋다

ㄷ. 쉬운 우리말 대체어가 있는 한자어

---

있었다. ‘작렬(炸裂)-작열(灼熱), 반증(反證)-방증(傍證), 곤혹(困惑)-곤욕(困辱), 부문(部門)-부분(部分), 지향(指向)-지양(止揚)’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6) ‘비행기(飛行機)’를 ‘날틀’로 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현배(1953: 106-107)는 이것이 한 월북 인사의 개인적 주장이었을 뿐 한글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공식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하였다. 최현배(1953: 107-119)는 ‘이화여자전문학교(梨花女子專門學校)’ 역시 ‘배꽃 계집에 오로지 문 배움집’으로 순화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이는 반대론자들이 거짓으로 꾸미거나 그들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예) 대금(貸金) → 값      무상(無償) → 거저

    보상하다(報償하다) → 갚다

ㄹ. 구어에서 널리 사용하지 않고 문어로만 사용하는 한자어

    예) 건곤(乾坤) → 하늘땅    수영하다(水泳하다) → 헤엄치다

ㅁ. 고유어를 한자어로 잘못 인식한 단어

    예) 生覺하다 → 생각하다    生起다 → 생기다

특히 (2ㄱ, ㄴ)의 경우에 이를 고유어로 바꾸되 마땅한 고유어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식 한자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한자어가 무조건적인 배척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현배(1953)는 본문에서 ‘지배(支配), 이상(理想), 문학(文學), 이성(理性), 정의(情誼), 개념(概念)’ 등과 같은 추상 명사를 괄호에 한자를 써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한자어들은 고유어로 순화하였다.

- |                     |               |
|---------------------|---------------|
| (3) ㄱ. 집단(集團) → 무리떼 | 군중(群衆) → 떼무리  |
| 공간(空間) → 얼안         | 구성(構成) → 얼거리  |
| 보조(步調) → 걸음걸        | 골격(骨骼) → 뼈다귀  |
| 뼈다귀어휘(語彙) → 말수      | 인류(人類) → 사람갈래 |
| 진의(眞意) → 참뜻         | 정수(精髓) → 쫓지   |
| ㄴ. 창조(創造) → 애지음     | 지속(持續) → 잇달음  |
| 발달(發達) → 피어남        | 대립(對立) → 맞섬   |
| 대응(對應) → 마주남        | 형성(形成) → 꼴 이룸 |
| 공감(共感) → 함께 느낌      | 증진(增進) → 더해감  |
| 복종(服從) → 좇음         | 수용(受容) → 받아들임 |
| 강조(強調) → 힘춤         | 사고(思考) → 생각하기 |

(3ㄱ)은 비서술성 명사로서 대개 고유어 합성어로 순화되었고 (3ㄴ)은

서술성 명사로서 대개 용언의 명사형으로 순화되었다. (3ㄴ)의 경우 이들이 ‘창조하다, 수용하다, 증진하다’와 같이 서술어를 이루게 되면 그 순화어도 ‘애짓다, 받아들이다, 더해가다’와 같이 명사형이 아닌 용언이 된다. 일본식 한자어 순화는 문교부(1948)를 비롯하여 문교부(1977, 1978), 문화관광부(1995), 국립국어원(2005) 등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었다.<sup>7)</sup> 이 중 문교부(1948)의 순화 내용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순화에 실패한 예들도 있지만 성공한 예들이 더 많다.

- |                         |                   |
|-------------------------|-------------------|
| (4) ㄱ. 자금(資金) → 밀천      | 적자(赤字) → 결손, 부족   |
| 현관(玄關) → 문간             | 간판(看板) → 보람판, 보람패 |
| 의뢰(依賴) → 부탁             | 장소(場所) → 곳, 처소    |
| 입구(入口) → 들목, 들어가는 데, 어구 |                   |
| ㄴ. 상조(上潮) → 밀물          | 유양(有樣) → 모양, 형편   |
| 담대(沓台) → 발판             | 본립(本立) → 책꽂이      |
| 장대(狀袋) → 봉투             | 화하(靴下) → 양말       |
| 을녀(乙女) → 아가씨            | 완지(宛地) → 받을 곳     |

(4ㄱ)은 지금도 널리 사용하는 한자어로서 사실상 순화에 실패한 예이다. 그러나 (4ㄴ)과 같은 많은 한자어들은 순화에 성공하여 지금은 사용하는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문교부(1948)의 한자어 순화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어 순화가 본격화되면서 순화 대상 한자어의 수는 점점 늘어났지만, 최근까지 진행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한자어 순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순화어가

7) 물론 이들은 일본식 한자어만 순화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자료집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성격의 순화 대상어들 중 일본식 한자어를 공통으로 다루었다는 점이 이들 자료집의 특징이다.

실제적이지 못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의 순화 자료 집에서 다른 한자어 중 순화에 실패한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5) 회람(回覽) ⇨ 돌려 보기 | 구입(購入) ⇨ 사들임, 사들이기 |
| 계양(揭揚) ⇨ 닦, 올림     | 결손(缺損) ⇨ 모자람       |
| 단합(團合) ⇨ 뭉침        | 매립(埋立) ⇨ 매움        |
| 선취(先取) ⇨ 먼저 얻음     | 압수(押收) ⇨ 거둬 감      |
| 위촉(委囑) ⇨ 맡김        | 절수(節水) ⇨ 물 아낌      |
| 품절(品切) ⇨ (물건) 없음   | 남발(濫發) ⇨ 마구 냄      |

순화에 실패한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화어가 용언의 명사형인 경우가 많다.<sup>8)</sup> 사실 이러한 명사형은 새로운 말의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다.<sup>9)</sup> 명사형은 서술어의 어감을 주는 데다 '결손 가정, 계양식'과 같은 복합어의 경우 선행 요소인 '결손, 계양'만 명사형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 한자어를 순화할 때는 가급적 명사형으로 순화하는 것을 피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외래어의 순화는 크게 일본어와 서양 외국어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본어의 순화는 문교부(1948)를 비롯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비해 영어를 대표로 하는 서양 외국어의

8) 제시한 예에서 '⇨'는 순화한 용어로 쓰는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국립국어연구원(2003)은 3가지 부호를 사용했는데, '➡'는 순화한 용어만 쓰도록 한다는 의미로, '⇨'는 순화한 용어로 쓰는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를, '='는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한 용어를 둘 다 써도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문교부(1977)에서 사용한 'X'(심의 대상이 된 말을 쓰지 않음), 'O'(심의 대상이 된 말과 바꿈말을 아울러 써도 좋음), '→'(되도록 바꿈말만 쓰기를 권장함.)의 기준을 수용하면서 형식을 약간 바꾼 것이다.

9) 원래는 파생 명사로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겠지만, 워낙 쓰임이 낮설다 보니 언중들은 이를 용언의 명사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순화는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암울한 역사 탓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매우 엄격한 반면 영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영어 공용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매우 관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 (6) 다꾸양[澤庵, たくあん] ➔ 단무지
- 벤또[辨當, べんとう] ➔ 도시락
- 자부돈[座布団, ざぶとん] ➔ 방석
- 땃빵[鐵板, てっぱん] ➔ 우두머리, 두목
- 다마[珠, 球, 玉, たま] ➔ ① 구슬, 알 ② 전구 ③ 당구

문교부(1948)에서 순화안을 제시한 일본어들은 현재 대부분 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 다루어진 예들도 위와 같이 비교적 순화가 잘된 편이다. 다만 '와사비(山葵, わさび ➔ 고추냉이), 쓰키다시(突出し ➔ 곁들이 안주)'와 같은 음식 용어나 '가라(空, がら ➔ 가짜, 헛-)'와 같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일본어에 비해 서양 외래어는 대부분 별 거부감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의 예는 문교부(1977)에서 반드시 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서양 외래어 중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이들 목록을 보면 많은 외래어들이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갭(gap) ➔ 틈, 간격
- 사이즈(size) ➔ 크기
- 컷트(cut) ➔ 머리치기
- 립스틱(lip stick) ➔ 입술 연지
- 스케일(scale) ➔ ① 규모 ② 축척
- 스킨로션(skin lotion) ➔ 피부 화장수



아이스박스(ice box) ➡ 얼음 상자  
 디스카운트(discount) ➡ 에누리, 할인  
 카운슬러(counselor) ➡ 상담자, 교도 교사  
 쇼핑(shopping) ➡ 물건 사기, (시)장 보기  
 커버(cover) ➡ 씌우개, 덮개, 뚜껑  
 컬러(color) ➡ 색채, 빛깔, 천연색  
 헤게모니(독 Hegemonie) ➡ 주도권  
 헤어스타일(hair style) ➡ 머리 모양

이 중 '쇼핑, 립스틱, 커트' 등은 상대적으로 순화어의 쓰임이 약해 국어의 어휘 체계에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순화가 진행된 다음의 예들도 일상생활에서 순화어보다는 외래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 (8) 리포터(reporter) ⇨ 보고자, 보도자  
 린스(rinse) ⇨ 행굼 비누  
 메뉴(menu) ⇨ 차림(표), 식단  
 바코드(bar code) ⇨ 막대 표시, 줄 표시  
 치킨(chicken) ⇨ 닭고기 튀김  
 발코니(balcony) ⇨ 난간  
 버전(version) ⇨ 판  
 인터뷰(interview) ⇨ 회견, 면접  
 헬스클럽(health club) ⇨ 건강 방  
 로비(lobby) ⇨ ① 휴게실, 복도 ② 막후교섭  
 서빙하다(serving-) ➡ 봉사하다, 접대하다, 내다  
 스티커(sticker) ➡ 붙임 딱지  
 업그레이드(upgrade) ➡ 상승, 개선, 승급

이와 같은 외래어의 순화 결과는 일본어에는 엄격하면서도 영어에는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서양 외래어가 계속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순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어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상으로 어종별 어휘 순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어휘의 순화 대상으로 '겹말'(동의 중첩어)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는 같은 뜻을 가진 말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룬 것을 말하는데, 의미의 중복이 비경제적이라 하여 일찍이 순화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 (9) ㄱ. 처갓집, 종갓집, 고목나무, 국화꽃, 뒷배경, 새신랑, 새색시,  
단발머리, 산채나물  
 ㄴ. 역전 앞, 옥상 위, 하루 종일, 과반수 이상  
 ㄷ. 따뜻한 온정, 어려운 난국, 새로운 신제품, 남은 여성,  
넓은 광야, 아름다운 미녀, 오래된 고목, 어린 소녀  
 ㄹ. 결실을 맺다, 박수를 치다, 미리 예방하다, 피해를 입다,  
곧바로 직행하다, 과반수가 넘다, 판이하게 다르다, 말로 형언  
할 수 없다, 상을 수상하다, 유언을 남기다, 둘로 양분하다,  
피로감을 느끼다

(9ㄱ~ㄹ)은 각각 합성어, 명사 연쇄 구성, 관형 구성, 절에 해당한다.<sup>10)</sup> '처갓집'을 예로 들면 '처가'의 '가(家)'와 '집'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처갓집'은 '처가'로 순화해야 한다는 것이 겹말의 순화 원리이다. 그런데 이때 의미 중복 관계에 있는 두 요소는 대개 고유어와 한자어이다. 엄밀

10) 엄밀히 말하면 명사 연쇄 구성, 관형 구성, 절은 어휘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의미 중복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겹말 어휘와 동일하게 순화 대상이 되므로 '겹말'이라는 공통 속성을 중시하여 단어, 구, 절을 여기에서 함께 다루도록 한다.

히 말하면 한자어의 한 요소와 고유어가 의미 중복 관계에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남은 여생’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두 요소는 한자어의 일부 요소인 ‘여(餘)’와 고유어인 ‘남은’이다.

그런데 대개 한자어의 경우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리해 인식하기 보다는 한자어를 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생’에서 ‘여(餘)’를 별개로 인식하여 고유어 ‘남은’과 의미 중복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자어에 덧붙는 고유어가 그 한자어에서 뚜렷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한자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남은 여생’에서 고유어 ‘남은’은 한자어 ‘여생(餘生)’의 ‘여(餘)’를 의미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곱말은 순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집단이나 사물 또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휘를 순화한 경우도 있다. 직업군에 속하는 ‘간호원, 청소부, 우체부’를 각각 ‘간호사, 환경미화원, 집배원’으로 순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명칭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개별적으로 순화를 진행한 예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장애자 → 장애인(1989년 장애인복지법)

이지메 → 집단 괴롭힘(1997년 문화체육부 국어심의회)

노인 → 어르신(1998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원조 교제 → 청소년 성매매(2001년 서울지방경찰청)

콘돔 → 애필(愛必)(2004년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탈북자 → 새터민(2005년 통일부)

정신 지체 장애 → 지적 장애(2007년 장애인복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 입영 및 징총 거부자(2009년 국방부)

부랑인, 노숙인 → 홈리스(homeless)(2010년 보건복지부)

공모 또는 심의를 통해 탄생한 순화어들은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애필(愛必), 홈리스(homeless)’와 같이 개인 및 단체의 심한 반발에 의해 순화어가 폐기된 경우도 있다.<sup>11)</sup> 이 때문에, 명칭을 변경한다고 인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명칭 변경이 유행처럼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12)</sup>

## 2.2. 발음 순화

발음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통해 체계적으로 순화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방송 매체를 중심으로 특정 단어의 발음을 수정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순화가 이루어졌다. 올바른 발음에 대한 규범을 모아 놓은 표준 발음법이 있고 국어사전에 각 단어의 발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소리를 매개로 한다는 특수성 때문인지 발음의 순화는 어휘 순화에 비해 체계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다.

발음의 순화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단을 구별하는 것이다. 표준 발음법 제3장에서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 장단을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 및 각종 발음 사전의 장단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 데다가 일반 언중들은 장단의 차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며, 심지어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한다는 방송인들조차도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단 구별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순화 과제로 여겨진다.

11) ‘애필’은 같은 한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로 폐기되었고 ‘홈리스’는 한글 단체들의 반발로 폐기되었다.

12)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좋은 예가 된다. 1989년에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했음에도 여전히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명칭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0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새 이름을 공모했다. 그 결과 ‘가능인, 가온인, 늘품인, 아올인, 해술인’ 등이 우수작으로 뽑혔으나 명칭이 낯설고 의미 연결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정식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장단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경음 발음이다. 과도하게 확산된 어두 경음화 현상도 문제지만, 방송 등에서 주로 순화하려고 노력하는 비어두의 경음 발음도 문제가 심각하다. 다음은 어휘 개별적으로 순화 노력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경음 발음이 순화되지 않은 단어들이다.

(11) 자장면[자장면]	효과(效果)[효과]
불법(不法)[불법]	교과(敎科)[교과]
관건(關鍵)[관건]	김밥[김밥]
장맛비[장마뻘/장만뻘]	

‘자장면’은 외래어의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에 ‘짜장면’이라고 했던 것을 평음으로 표기하도록 순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짬뽕’의 경음 표기 및 발음이 문제가 되지만, ‘짬뽕’은 음식 이름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뒤섞음’이라는 파생된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 우리말에서 어느 정도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기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파생 의미가 없는 외래어 ‘껌(gum)’은 국어사전에서도 경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평음으로 표기하고 평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잼(jam)’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물론 방송에서도 주로 [잼]으로 발음하고 있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할 수 없다.

‘효과’ 역시 일반인들은 경음 발음을 선호하지만 올바른 발음은 평음 발음이다. 그러나 ‘성과(成果), 전과(戰果)’와 같이 유성음 뒤에서 ‘과(果)’가 [과]로 발음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효과]로 되돌리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sup>13)</sup>

13) 1965년의 《새한글사전》(한글학회)에는 ‘전과(戰果), 성과(成果), 효과(效果)’의 발음이 모두 평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75년의 《새 우리말 큰

‘장맛비’는 그동안 [장마비]로 발음하던 것을 2003년 무렵부터 방송을 통해 경음 발음으로 순화하였다. 그 이전부터 국어사전에서 발음을 경음으로 규정했지만, 방송에서 잘못 발음하다가 나중에야 바로잡는 바람에 오히려 대중에게 큰 혼란을 주고 말았다. 이 때문에 평음 발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sup>14)</sup>

표준 발음법 제21항에는 다음과 같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음 동화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 (12) ㄱ. 감기[감 : 기](×[강 : 기])      옷감[온감](×[옥감])  
           있고[인꼬](×[익꼬])              꽃길[꼰길](×[꼭길])  
       ㄴ.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뻬](×[뭉뻬])  
           꽃밭[꼰밭](×[뽀밭])

(12ㄱ)은 연구개음이 아닌 일부 선행 음절의 종성이 후행 음절 초성 ‘/ㄱ/’의 영향을 받아 연구개음 ‘[ㄱ]’나 ‘[ㅇ]’으로 발음되는 연구개음화 현상의 예이고, (12ㄴ)은 양순음이 아닌 일부 선행 음절의 종성이 후행 음절의 초성 ‘/ㄴ/, /ㅂ/’의 영향을 받아 양순음 ‘[ㅁ], [ㅂ]’로 발음되는 양순음화 현상의 예이다. 이 둘은 모두 필수적인 동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을 잘못된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에서조차도 출연자들이 ‘한강, 인기’를 각각 ‘[항강],

---

사전》(증보판, 신기철·신용철 편), 1984년의 《현대 국어대사전》(양주동 감수) 등에서는 이들의 발음을 모두 경음으로 보았다. 그러다가 이후의 사전들은 ‘전과(戰果), 성과(成果)’는 경음으로, ‘효과(效果)’는 평음으로 발음을 이원화하였다. 이것이 ‘효과(效果)’의 발음을 원래의 발음으로 순화한 것이라면 ‘전과(戰果), 성과(成果)’도 마찬가지로 순화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어찌런 영문인지 ‘효과’의 발음만 순화 대상이 되었다. ‘자장면, 짬뽕, 껌’에서 드러나는 형평성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발생한다.

14) 김상준(2004)은 여러 종류의 발음 사전에 발음과 표기가 모두 ‘장마비’로 되어 있다며 ‘장맛비’[장마뻬/장맛뻬]가 오히려 옳지 않다고 보았다.

[잉끼]로 발음하는 등 동화된 발음이 표준 발음보다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연구개음화 현상은 이 현상의 적용을 받은 ‘강남콩(←강남콩)’이 표준어로 인정된 예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떡갈나무(←뎡갈나무), 싱겁다(←슴겁다), 어깨(←엇게), 토끼(←뎡기), 도끼(←뎡귀), 도깨비(←뎡가비), 두껍다(←뎡겁다), 궁금하다(←굸금하다)’ 등 다수의 어휘가 이 현상의 영향을 받아 발음과 표기에서 변화를 입은 바 있으므로 현재의 표준 발음과 동화된 발음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이동석, 2004).

지금까지 살펴본 발음 순화 내용들은 순화의 근거가 약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익숙했던 발음을 바꾸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탓인지 언중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순화의 근거를 재검토하고 언중의 실제 발음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순화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2.3. 구문 순화

구문 순화는 정부 기관보다는 민간단체 및 개인에 의해서 제기된 경우가 많다. 그러하다 보니 내용도 다양하고 어조도 조금씩 다른데,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피동 표현을 순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장의 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되어지다, 보여지다’와 같은 이중 피동 표현을 중점적으로 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중 피동 표현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피동 표현까지도 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피동 표현을 순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번역체라고 보기 때문이다.

번역을 통해 피동 표현이 확산되었다는 지적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동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동 표현은

범언어적인 현상으로서 일찍이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의 문장에서도 피동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어를 제시하기 어려운 문장에서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동 표현이 우리말의 표현력을 풍성하게 해 주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확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순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보다는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거나 일부 이중 피동 표현과 같이 아주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구문으로 순화하여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조사 ‘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주어적 속격이라고 하는 ‘나의 살던 고향’을 ‘내가 살던 고향’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과 ‘에의, 로의, 에서의, 에로’의와 같이 ‘의’가 결합한 조사 결합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순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용법이 모두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근거다.

그러나 주어적 속격은 범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주어적 속격 구문은 신라 시대의 향가 작품은 물론 고려 시대의 구결문, 조선 시대의 여러 한글 문헌에 두루 사용되었기 때문에 번역 투 구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역사 깊은 우리말 표현에 속한다(이동석, 2010a, 2011).

‘의’가 결합한 조사 결합형 역시 일본어 및 영어의 영향을 받은 번역 투 구문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중세 국어에도 ‘옛, 뭇’과 같이 부사격 조사 뒤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결합이 우리말에서 자체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에의, 로의’라는 형태 자체는 외국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사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를 결합하는 문법적 기제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비문법적인 것으로 규정할 근거가 희박하다.

경어법과 관련해서는 ‘인사드리다, 감사드리다’와 같이 ‘-드리다’를 남



용하지 말고 단순하게 ‘인사하다, 감사하다’로 표현해야 한다는 순화 의견이 있다. 이와 같은 ‘-드리다’의 용법이 최근에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가 유기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다소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전통에만 얽매어 새로운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자칫 언어생활을 경직되게 할 수 있다.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가 문법적인 면이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변화의 진행 정도와 영향력을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제와 관련해서는 ‘-있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고 있다’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순화 의견이 있다. ‘-있었-’은 영어를 번역하면서 들어온 표현이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고 있다’는 ‘-나다/-는다’ 정도로 표현해도 무난한 것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있었-’은 이미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문법적인 기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외국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순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고 있다’ 역시 어느 정도 남용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문법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므로 문체의 변화 차원에서 두고 볼 일이다.

### 3. 방법론 제언

언어 순화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진 언어의 현재와 미래에 인위적인 변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언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여 무조건 변화를 거부해서도 안 되고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요소를 방치하여 언어생활에 혼란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언어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순화 방안을 내놓아도 사용자인 일반 언중이 이를 외면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국어 순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순화는 일반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반영하여 일반 언중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광복 직후의 일본어 순화 방안이나 그 이후의 국어 순화 방안들은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순화어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어 순화의 경우 언중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성공할 수 있었지만, 한자어 및 서양 외래어의 경우에는 순화에 실패하여 아직도 순화 대상어가 널리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언중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여 생긴 문제다. 물론 언중의 반응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특정 어휘 및 표현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에 대한 순화 의지가 있는지, 순화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순화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에서 어문 규정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표준 발음 및 외래어 발음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 일반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실제적인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이러한 조사가 아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국어 순화와 관련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 순화를 시작한 지 반세기가 넘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순화의 내용을 언중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앞으로 진행하게 될 순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언중의 수용 여부를 예측한다면 국어 순화가 보다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순화 대상 어휘 및 표현의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우리말의 역사적 전통을 왜곡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시적 언어는 통시적 언어의 한 부분에 해당하며 현재의 언어는 과거

로부터 이어져 온 언어의 변화 선상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어 변화의 큰 흐름을 무시한 채 다른 언어와의 단순한 비교나 일방적인 기준 적용을 통해 순화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했던 주어적 속격과 ‘의’의 결합형이다. 이들은 모두 최근에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것으로 언급되었지만, 최근의 연구를 통해 오히려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영어 번역을 통해 확산되었다는 피동 표현도 전혀 새로운 구문이 아니라 정도만 다를 뿐 과거부터 꾸준히 사용해 왔던 표현이므로 무조건 순화해야 한다고 무리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언어의 변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특정 어휘나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러한 어휘나 표현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를 입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순화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어 순화는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과 수용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용하거나 순화하는 문제를 과거에만 얽매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앞서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무조건 과거의 것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전통적인 표현을 외래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과거에 집착하여 새로운 변화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언어는 변하기 마련이다. 만약 새로운 어휘나 표현이 출현하거나 발음에 변화가 생겼다면, 먼저 이러한 변화가 문법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법성 검증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순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문법성 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의사소통의 문제, 언중의 수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최근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와 같이 ‘너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너무’는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문맥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의 ‘너무’를 ‘아주’나 ‘매우’ 등으로 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너무’가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그러나 중세 국어의 ‘흐마’가 ‘이미, 벌써’와 ‘장차, 곧’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현대 국어 방언에서 ‘이미, 벌써’의 의미만 가지게 된 것과 같이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현대 국어 ‘너무’의 문맥 의미 변화는 어휘적인 차원이어서 문법적으로 아무런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대중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미 변화가 이미 보편화되어 의사소통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문법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수용하여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변화를 인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휘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미 변화를 이루었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말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넷째, 순화 대상어의 다양한 사용 문맥을 고려하여 순화어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자어의 순화어로 명사형을 제시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명사형은 서술어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실제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채택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순화 대상어가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파생어나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13) ㄱ. 압수(押收) ⇨ 거둬 감

압수 수색 → 거둬 감 수색(?)

압수당하다 → 거둬 감을 당하다(?)

ㄴ. 품절(品切) ⇨ (물건) 없음

품절 상품 → 없음 상품(?), 없는 상품(?)

품절되다 → 없다(?), 없어지다(?)

‘압수’를 ‘거둬 감’으로 순화한다면 ‘압수하다’는 ‘거둬 가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응용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순화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거둬 감 수색’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너무 어색하다. ‘압수당하다’ 역시 ‘거둬 감을 당하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거두어지다’라고 하기도 어렵다.

‘품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품절 상품’을 ‘없음 상품’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없는 상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없는 상품’은 부분적으로 의미가 통하기는 하지만, ‘다 팔려서 현재 없는 상품’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순화어가 명사형일 경우 명사형 자체의 쓰임도 어색하지만, 다른 단어와 어울리거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표현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순화어가 적절하다 하더라도 이 순화어를 다양한 문맥 상황에서 두루 사용할 수 없다면 결국 이 순화어는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순화 대상어가 얼마나 다양한 문맥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단어와 주로 결합하고 어떠한 접사와 결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모든 경우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순화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국어 순화의 결과를 분석하고 국어 순화의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국어 순화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휘 차원에서 일본어의 순화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외의 한자어나 서양 외래어의 순화는 성공적이라 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 일본어 및 한자어와 서양 외래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차이를 반영한 결과여서 국어 순화의 내용과 방법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화어를 주로 명사형으로 제시하거나 다양한 문맥 의미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발음과 구문의 순화는 순화 근거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발음의 경우 방송 매체를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중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며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구문의 순화는 역사적인 전통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외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외래적인 요소를 배척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순화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국어 순화는 우리말을 아름답게 다듬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언중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되며 규제의 차원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가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 및 개인 차원에서 규제의 성격을 띤 채 진행되었다면, 앞으로의 국어 순화는 언중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거부감 없이 순화 내용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대중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5),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원.
- 김상준(2004), 방송의 일기예보, 너무 호들갑스럽다, 《업코리아》 7월 22일 자.
- 문교부(1948), 《우리말 도로 찾기》, 조선교학도서.
- 문교부(1977), 《국어순화자료》 제1집, 문교부.
- 문교부(1978), 《국어순화자료》 제2집, 문교부.
- 문화관광부(1995), 《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집》,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1988),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문화체육부(1997), 《국어순화용어자료집》, 문화체육부.
- 박갑수(1984), 《國語의 表現과 醇化論 -國語와 國語教育의 諸問題》, 지학사.
- 박용찬(2005),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원.
- 부산상업고등학교 국어순화협의회(1977), 《국어 순화 자료집》, 부산상업고등학교.
- 서울여자대학 국어순화운동부 편(1987), 《우리말과 글 바로쓰기》, 서울여자대학 출판부.
- 이동석(2004), 연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어문논집》 50, 487-513.
- 이동석(2006), 신문 방송 언어의 실태와 언어 규범, 《한국어학》 33, 61-86.
- 이동석(2010a), 주어적 속격의 원조를 찾아서 -'나의 살던 고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말과글》 122, 42-47.
- 이동석(2010b), 부사어의 관형어적 표현은 비문법적인가? -'에의'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말과글》 123, 29-34.
- 이동석(2010c), 우리말의 피동 표현, 《말과글》 124, 61-66.
- 이동석(2011), 일부 국어 관형 표현의 일본어 영향설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39, 241-273.
- 이병호·정진권(1970), 《한글 전용의 실제》, 교학사.
- 이오덕(1992), 《우리글 바로쓰기》, 한길사.
- 이익섭(1992), 국어 표준어의 歷史,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연구원, 71-79.
-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 바꾸기' 팀(2005), 《한국어가 있다1》, 커뮤니케이션북스.

-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 바꾸기’ 팀(2005), 《한국어가 있다2》, 커뮤니케이션북스.
-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 바꾸기’ 팀(2005), 《한국어가 있다3》,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용기(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국립국어연구원.
- 최현배(1953),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정음문화사.
- 최혜원(2001a),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 II, III》, 국립국어연구원.
- 최혜원(2001b),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최혜원(2002), 《표준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한국교열기자회(1994), 《신문·방송 보도 용어 순화 자료집》, 한국교열기자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79), 《國語의 醇化와 教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허철구(2001), 국어 순화,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연구원, 353-381.